

1. 성육신에 관하여

- 성 아타나시우스

- 아타나시우스는 297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318년 아리우스가 예수는 하느님이 창조한 존재이므로 하느님보다 하위라는 주장을 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이러한 아리우스의 사상을 논박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섯 번의 유배의 길에 올랐다.
- 당시에 떠돌던 이단적 사상 중 하나인 하느님은 기존에 있던 물질로부터 지구를 창조했다는 플라톤의 사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으로서 천지창조의 배후에는 생각 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물은 자기발전의 우연한 과정을 거쳐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 아타나시우스는 논리와 성경의 근거를 활용하면서, 세상과 사물을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상을 반박한다.
- 하느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말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와서 그 몸을 죽음 앞에 내맡겼다.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당초에 인류를 만들어 내신 그분만의 고유한 역할이다.
- 인간은 피조물 또는 지상의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성육신을 통해 지상에 왔다. 즉 인류가 간편하게 이해하도록 이 방편을 취하신 것이다. 예수의 몸은 하느님을 어떤 구체적 사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 모든 사람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른 우리 운명이 죽음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더는 죽지 않게 된다.
-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 받은 몸이 되어 죽음의 저주를 극복했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양손을 밖으로 내뻗으며 돌아시게 하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교도들을 그 분 품 안에 함께 껴안으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은 무기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썩썩 묶인 고립무원의 한물간 폭군이 되었다.

왜 [성육신에 관하여]는 중요한가

- 아타나시우스는 三位一體의 교리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저작은 교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가 神人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까닭이다.
- 예수의 완벽한 부패불능으로 죽음의 부패를 물리침으로서, 하느님은 죽음을 단 한 번의 조치로 영원히 정복했다.
- 우리의 신체는 축복이고, 영적 단련 자체는 신체에 의해 실현되는 과정이지, 정신

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성육신에 관하여]를 읽는 요령

- 묵상을 통하여 하느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묵상 속에서 우리는 공부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해하게 된다.

성육신에 관하여의 하이라이트

제2장: 하느님의 딜레마와 성육신을 통한 해결

- 인간을 창조한 후 방치하여 죽게 내버려둔다면 애초에 그들을 창조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하느님 사업이 파괴되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만 본다면 그건 하느님이 전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 타락을 통하여 인간이 부패하게 되었다면, 참회를 통하여 부패불능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참회가 해주는 것이라고는 더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인류가 그저 타락만 했고, 그 후 부패를 겪지 않았다면 참회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타락이 시작되자 인간은 본성에 속한 부패의 힘에 종속되었고, 또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갖고 있던 은총을 박탈당했다. 참회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원상회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은총과 회복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아니 누가 필요했을까? 누가 태초에 무에서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 말씀을 구제할까? 타락 가능한 것을 타락 불능으로 되돌리고 아버지의 성격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오로지 그분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그분만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성부와 함께 모든 것의 대리인 될 수 있다.